2004년 10월 1일

第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56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수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군의 초석을 놓으신 창군 원로와 예비역, 그리고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6·25전쟁 당시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그 이후 계속된 대결과 긴장 속에서도 국방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 장병들도 이라크에 무사히 도착해서 전후복구에 땀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의 눈부신 발전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조정, 북핵문제 등 어려운 안보상황

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보의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분단 이후 처음 열려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와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힘든 과제를 오히려 한·미 동맹의 질적인 향상과 자주국방 능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세기에 걸친 공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안보환경을 한층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이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예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정보역량 강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적어도 대북억제 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머지않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 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용상의 개선만 있었을 뿐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군 스스로의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합니다. 국방조직의 전문화, 문민화와 같은 혁신을 통해서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미래전 수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통합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군의 진정한 힘은 드높은 사기에서 비롯됩니다.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증진은 우리 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전력입니다. 정부는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제대군인의 취업문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명예가 존중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한 아들딸들을 국방의 일선에 보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